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새국면 돌입

178명 명예퇴직에 임금 삭감규모 줄여 ... 노조도 구조조정안 마련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임금 삭감규모를 줄이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노조도 자체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사교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월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제7차 본교섭에서 178명 명예퇴직 신청으로 노무비용 절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삭감하기로 했던 상여금 300%를 200%로 줄이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금호타이어는 2월11일 협상에서 현재 800%인 상여금을 500%로 300%를 깎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었다.

새로운 방안이 노조는 정회를 요청한 후 긴급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와 함께 자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23일로 예정된 8차 본교섭에서 노조가 회사의 방안을 전격 수용하거나 신규방안을 내놓으면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기존에 예고했던 정리해고 인원 371명에서 명예퇴직 신청자 178명을 제외한 193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금 삭감규모를 줄이는 새로운 안이 아니라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노무비 절감 부분만큼 삭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2월23일 협상에서 노조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에 따라 협상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3>